

【번역논문】

번역문의 차이로 보는 ‘万宝山事件’의 문학적 표상*

—李泰俊 「農軍」의 일본어 번역본 비교 분석—

朴弘**

차례

- I. 머리말
- II. 조선 문단에서의 「농군」 독해 양상
- III. 번역 텍스트로서의 「농군」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만보산 사건을 소설화한 이태준의 「농군」과, 이를 번역한 신건(申建) 및 정인택(鄭人澤)의 일본어 번역본 2종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은 번역 과정에서 ‘만보산 사건’에 대한 문학적 표상이 변용되는 양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두 번역은 상이한 전략을 통해 원작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신건의 번역이 민족주의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조선과 중국 농민 간의 갈등을 첨예화하는 반면, 정인택의 번역은 원작의 문체와 문제의식을 충실히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의 분화는 문단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이중적 경로로 이루어진 당대 조선과 일본의 문화적 접촉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두 번역의 과정과 텍스트에 나타난 차이를 통해, 번역이 단순한 언어 전환을 넘어 제국과 식민지라는 비대칭적 권력

* 본고는 필자의 논문 「訳文の差異から見る「万宝山事件」の文学的な表象: 李泰俊『農軍』の二つの日本語訳を中心に」(『名古屋大学大学院人文学研究科』, 2025.3, 483-498)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본고의 한국어 원고를 검토해 주신 양아람 선생님(나고야대학), 교정을 맡아 주신 김민지 선생님(서울대), 교열을 맡아 주신 최원빈 선생님(국민대)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본 논문을 번역 논문으로 『만주연구』에 게재할 것을 제안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서재길 교수님(국민대)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 PIAO HONG(朴弘). 나고야대학 대학원 인문학연구과 박사 과정 수료.

관계 속에서 원작의 의미를 협상하고 재창조하는 문화적 실천임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만보산 사건, 「농군」, 번역

I. 머리말

이른바 ‘만보산 사건(万宝山事件)’은 1931년 7월 만주의 창춘에 위치한 만보산 부근에서 재만(在滿) 조선인의 논 개간을 둘러싸고 일어난 중국인과 조선인 농민 충돌 사건을 가리킨다.¹⁾ 당시 만주 지역에는 논 개간을 둘러싼 재만조선인 농민과 현지 중국인 농민의 갈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만보산 사건의 경우에는 중일(中日) 관현의 간섭으로 농민 충돌의 배경이 된 수로 공사 문제를 해결하고 마찰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일 합병 이후 재만 조선인의 이중 국적(二重国籍) 및 토지 상차권(土地商租權)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²⁾ 이 사건이 조선에 전해지자 7월 3일 이후 조선 각지에서 화교 습격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폭동으로 확대되었고, 재조 중국인의 가옥과 재산이 파괴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만보산 사건은 화교 배척 폭동과 함께 중일 외교 문제로 비화되어 당시 일본·중국·조선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만보산 사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당시 제국 일본과 중화민국 정부가 재만 조선인의 이중 국적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과 사건 해결의 목적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주류적 관점이다. 간단히 말하면, 만보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중화민국에서는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법은 외국인이 원국적을 상실

1) 현재 중국에서는 과거 만주 지역을 중국 동북 지역이라 부르며, ‘만주국’은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아 ‘위만주국(偽滿洲国)’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만주’와 ‘만주국’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지만, 이는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농군」 발표 당시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역사적 칭호로서 채택한 것이다.

2) 貴志俊彦 외 2인 편, 2012, 『二〇世紀滿洲歷史事典』, 吉川弘文館, 206쪽. 「万宝山事件」 항목 참조.

하지 않고도 중국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³⁾ 이러한 국적법 개정으로 재만 조선인의 중국 귀화는 용이해졌다. 그러나 만주에서의 조선인 귀화는 당시 중국에 환영받기보다는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조선이 제국 일본의 식민지였고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신민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이탈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법적으로만 제국 일본의 신민이라는 신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 만주의 주권과 이익을 둘러싼 중·일 간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앞서 언급한 재만 조선인의 이중 국적 문제는 당시 중화민국 정부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만보산 사건에 연루된 재만조선인 농민들이 제국 일본의 대륙 진출 정책을 위한 도구로 간주되었던 이상, 재만 조선인 농민들의 토지 개간과 정착이 현지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일 교섭의 공문을 보면, 중국 측은 처음부터 영토 주권의 보호와 치외법권 회수를 전제로 사건 해결을 추진했고, 만보산 지구의 조선인 농민은 퇴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만주 사변 직전까지도 바꾸지 않았다.⁵⁾ 이에 대해 재만 일본 영사관은 만보산 사건과 관련된 재만 조선인 농민의 보호를 재만 일본인의 발전, 나아가 제국 일본의 만주에 대한 권익 획득의 시금석으로 간주하고,⁶⁾ 만보산 지역 재만 조선인의 논 개간 권리를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재만 조선인에 대한 근본적으로 상이한 중·일 양측의 태도로 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했고, 만보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은 만주 사변으로 중국 동북 지역이 제국 일본의 실질적 세력 범위가 된 이후에야 구현되었다.⁷⁾

한편 당시 언론 보도는 '국가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⁸⁾ 한

3) 『國民政府公報』 86, 1929.2.7.

4) 遠藤正敬, 2011,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おける国籍と戸籍-滿洲・朝鮮・台湾』, 明石書店, 56쪽.

5) 王霖·高淑英 편, 『外交部致日本駐華公使照會(1931.9.15)』, 『萬寶山事件』, 吉林人民出版社, 359쪽.

6) 『外交公文書 二, 万宝山事件關係』(1931.6.6)에는 “만보산 문제는 일본인의 동북 진출의 시금석이며 공사를 단숨에 완수하고 끈기 있게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함”이라고 적혀 있다.

7) 손승희, 2007, 「지역너머의 萬寶山事件(1931년)」, 『인문연구』 53, 91-130쪽.

8) 杉森正弥, 1977, 「伊藤永之介と李輝英の「万宝山」-日本・中国文学における朝鮮人像」, 『語学文学』 15, 21쪽.

지방에서의 농민 간 수쟁(水爭)은 민족·국가 주권을 둘러싼 문제로 보도되었다. 만보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은 시계열적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공식적 설명이 대부분이었으며, 사건 당사자인 중국인과 조선인 농민의 증언을 보도한 기사는 극히 드물었다. 당사자로서의 모습이 대중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만보산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 창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직간접적으로 ‘만보산 사건’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사건 직후부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까지 일본어·중국어·조선어로 잇따라 발표되었다. 직접적으로 ‘만보산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는 일본인 작가 이토 에이노스케(伊藤永之介)의 「만보산(萬寶山)」(1931), 중국인 작가 리후이잉(李輝英)의 「만보산(萬寶山)」(1931), 조선인 작가 이태준(李泰俊)의 「농군(農軍)」(1939), 재일 조선인 작가 장혁주(張赫宙)의 「개간(開墾)」(1943) 등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논 개간을 둘러싼 재만 조선인과 현지 중국인의 갈등을 그린 작품도 적지 않다.⁹⁾ 전시기에 발표된 이 작품들은 상호 소개나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농군」은 ‘만보산 사건’ 8년 후에 조선어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조선소설대표집(朝鮮小說代表集)』[신건(申建)역편, 교재사(教材社), 1940.2]과 『이태준 단편소설집(李泰俊 短編小說集) 북덕방(福德房)』[정인택(鄭人澤) 역, 모던일본사(モダン日本社), 1941.8]에 수록되는 형식으로 일본어로 두 차례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의 과정은 전시 만보산 사건, 혹은 만주에서 중·조 농민 갈등의 표상이 어떻게 문학 작품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제국 일본으로까지 유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농군」이 집필·번역된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은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어 잡지가 잇따라 폐간되고 언론 통제가 더욱 강화되던 시기였다.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에서는 ‘내선일체(內鮮一體)’, ‘오족협화(五族協和)’와 같은 전쟁 동원을 위한 민족 공영 구호가 크게 내걸렸다. 이민족 공생과 공영이 강조되고 검열도 엄격해진 시기에, 만주의 민족 문제를 드러낸 사건을 그린 「농군」이 집필·번역된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일본 문단에서는 이른바 ‘조선 붐(朝鮮ブーム)’이 일어나 조선 문학이 대량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농군」을 수록한

9) 그 밖에 만보산 사건을 배경으로 재만 조선인과 현지 중국인의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는 김동인 「붉은 산-어느 의사의 수기」(1929), 안수길 「벼」(1941) 등이 있다.

『조선소설대표집』과 『이태준 단편소설집 복덕방』도 이 시기 일본에서 출판되어 조선 붐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남부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소설대표집』에는 '군국 일본의 대조선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작품이 다수 번역되어 있어 조선 측의 정치성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¹⁰⁾ 정실비는 모던 일본판 『이태준 단편소설집 복덕방』이 '제2회 조선예술수상작(第二回朝鮮藝術受賞作)'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것은 '내선일체'라는 제국 지배 정책에 영합해 기획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번역 불가능한 타자로서의 조선이 번역 텍스트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논하고 있다.¹¹⁾ 즉, 당시 일본에서 유행된 조선 문학 번역현상은 식민지 조선 작가들에게 향토색이 강하거나 식민지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작품을 제국에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단순히 타자로서의 조선이 제시된 것에 그치지 않고, 제국의 식민 정책을 비판하는 언설도 동시에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군」이라는 텍스트는 조선을 보여 주겠다는 의도로 일본어로 번역되었지만, 「만주」라는 또 하나의 공간을 포함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두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은 대부분 조선만을 그린 것이며, 「농군」과 같이 만주를 엮은 작품과는 다르다. 민족 공존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조선·중국의 민족 및 주권 문제를 드러낸 만보산 사건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이 전혀 시국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선행 연구에서는 작가 이태준이 작품의 서두에서 "이 소설의 배경 만주는 그전 장작림의 정권 시대임을 말해 둔다"고 쓴 부분이나, 만보산 사건을 그릴 때 사실과 달리 일본인이 등장하지 않는 설정을 시국을 의식한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¹²⁾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엄격한 검열에 주목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서술을 검열을 피하면서 작품 속에서 재만 조선인 농민을 보호한 일본 영사관과 경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재만 조선인의 고난

10) 南富鎮, 2011, 『翻譯の文學 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の領域』, 世界思想社, 25쪽.

11) 정실비, 2019, 「이태준 단편소설집 『복덕방』의 일본어 번역출판양상: 모던일본사관 『복덕방』(1941)과 동방사관 『복덕방』(1955)을 통해서 본 번역과 제국주의의 관계」,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학회, 331쪽.

12) 김철, 2002, 「몰락하는 신생(新生):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誤讀)」, 『상허학보』 9, 123-159쪽.

을 묘사하려는 작가의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¹³⁾ 이러한 분석은 제국주의적 문화 통제가 식민지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작품 속 만보산 사건의 표상을 검토할 때 텍스트의 일부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의 구체적 내용과 필자 자신의 인식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각각의 언어로 쓰인 만보산 사건 관련 소설이 당사자의 모습을 전경화하면서 각 언어권의 만보산 사건 기억을 형성했다면, 일본어 문학에서의 만보산 사건의 기억은 「농군」의 번역에도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군」의 번역에는 하나의 문학 작품 번역에 복수의 역자와 출판사가 관여한 특수성이 배경으로 놓여 있다. 역문에서의 역자의 각색은 번역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역자 개인의 의도 양측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번역에 따라 원문과는 다른 만보산 사건의 표상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래의 선행 연구에서는 「농군」을 번역을 통해 제국 일본에서 타자로서의 조선을 인식하게 한 작품으로 파악해 왔으나, 이 작품이 또 다른 타자인 만주를 동시에 표상하고 있다는 점이나 번역에 따른 텍스트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농군」이라는 작품을 번역의 관점에서 다시 읽고자 한다. 특히 전시기에 발생한 만보산 사건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재서사화되었는지, 또 번역을 통해 일본에는 어떻게 유포되었는지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어로 두 차례 번역된 「농군」의 텍스트를 원문과 비교해, 원문과 번역본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역자의 의도를 살핀 뒤 역문의 위치를 재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작품 「농군」에 대한 동시대 조선 문단과 일본 문단에서의 평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시기에 「농군」을 통해 「만보산 사건」의 문학적 표상이 조선어에서 일본어로 번역·유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양 언어권 문단에서의 수용에는 어떤 격차가 있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농군」 일본어 번역의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13) 이상경, 2010,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만보산 사건에 대한 한중일 작가의 민족인식 연구(1)」, 『현대소설연구』 43, 한국현대소설학회, 188쪽.

II. 조선 문단에서의 「농군」 독해 양상

1. 조선어로 발표된 「농군」

「농군」의 작가 이태준은 문단 데뷔 이래 정면으로 일제의 식민 행위에 저항을 보여 준 작가라기보다는, 현실을 초월하는 예술지상주의적 색채를 짙게 드러낸 작가로 알려져 있다.¹⁴⁾ 동시대 작가들은 이태준을 누구보다도 '문장'으로 독자를 끌어당긴 작가이라고 평했고, 이태준의 감성적인 문장은 조선 문단에서 인정받았다.¹⁵⁾ 그러나 이태준의 작품은 프롤레타리아 문학계에서 피상적인 문장 기교만을 추구하며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의 복잡한 연관성에는 현실 도피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¹⁶⁾ 하지만 「농군」은 프롤레타리아 문학계 작가들에 의해 칭송되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 문학 평론가 임화는 「농군」을 이태준의 문학 창작이 “하나의 절정에 도달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극찬했다.¹⁷⁾

「농군」은 1939년 7월 조선어 문예 잡지 『문장(文章)』 임시 증간호 『창작 32인집(創作三十二人集)』에 실린 단편 소설이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인 농민인 주인공 유창권 일가는 새 삶을 찾기 위해 만주 창춘 근교의 장자와푸(姜家窩柵)로 이주한다. 고향 강원도에서 만주로 건너온 유창권 일가는 벼농사를 실현하기 위해 현지 조선인 농민들과 함께 수로 개간에 나서지만, 밭이 물에 잠긴다는 이유로 밭농사 전통을 지닌 현지 중국인 농민들에게 강한 반대와 방해를 받는다. 겨울에 접어들며 땅이 얼어 수로 공사가 중단되고, 설득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창권의 할아버지와 마을 노인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차례로 숨을 거둔다. 다시 봄이 오자 조선인 농민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논 개간을 계속하려 하지만, 현지 관현은 수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밭으로 만들 것을 명령한다. 그 자리에서 공사를 조직한

14) 權寧珉 편저, 田尻浩幸 역, 2012, 『韓國近現代文學事典』, 明石書店, 392쪽.

15) 김기림, 1933, 「작가본작가(10)스타일리스트李泰俊氏를論함(二)」, 『朝鮮日報』, 1933.6.27.

16) 백철, 1932, 「一九三二年度既成新興兩文壇의動向(三)文壇時評(其一)」, 『朝鮮日報』, 1932.12.23; 임화, 1934, 「一九三三年의朝鮮文學의諸傾向과展望(八)」, 『朝鮮日報』, 1934.1.14.

17) 임화, 1939, 「現代小説의樞樞-創作32人集을中心으로」, 『朝鮮日報』, 1939.7.19.

황채심은 조선인 농민들에게 조선어로 연설하며 수로를 계속 파라고 호소한다. 창권을 비롯한 조선인 농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이어가지만, 새벽 무렵 마을에서 총성과 함성이 들려온다. 창권은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그 순간 수로로 흘러드는 조선인 노인의 시체를 발견한다. 그리고 뚫린 물길의 물이 밭으로 번져 가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끝난다. 「농군」에서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회적·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민의 현실과 함께, 협력과 교류가 불가능한 현지 주민과의 갈등이 강조되고 있다.

유명한 만보산 사건을 다룬 「농군」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다. 요약하면,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해 가는 재만 조선인 집단을 불쌍히 여기는 작가의 감정이 두드러진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는 한편,¹⁸⁾ 현실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만보산 사건을 소재로 하면서도 재만 조선인의 죽음을 묘사하고 조선인만을 피해자로 형상화한 이야기 구도는 피해와 가해가 혼재한 식민지적 삶의 모순과 이중성을 보여 주기에는 부족하며, 시국에 편승한 작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¹⁹⁾ 식민지 문화 통제 아래에서 쓰인 「농군」은 시국 편승과 민족 주체성 추구가 표리일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혼종성을 내포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²⁰⁾ 다만 이러한 선행 연구는 「농군」이라는 작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다른 언어로 번역된 작품으로서 동시대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고찰할 경우에는, 작가의 시국적 대응뿐 아니라 텍스트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동시대 독자의 반응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작품 「농군」이 발표되기 1년 전, 이태준은 만주로 가서 신경(현 중국 청춘시)과 만보산 사건 발생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은 11편의 「이민 부락 견문기(移民部落見聞記)」로 정리되어 『조선일보(朝鮮日報)』에 연재되었다. 견문기에서 언급된 만보산 사건 당사자의 회상 등은 소설 속에서도 각색되어 재현되고 있다. 작품

18) 김재용, 2002,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65, 163쪽.

19) 김철, 2002, 앞의 논문 참조.

20) 정중현, 2004, 「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 1940년대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혼종성」,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172쪽.

속 만주와 재만 조선인의 표상 형성은 작가의 현지 시찰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농군」에는 견문기에서 볼 수 있는 이태준의 만주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인의 이주지로서 만주는 어떻게 보도되었고, 만보산 사건은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식민지 조선의 당시 조선어 신문 『동아일보(東亞日報)』와 『조선일보』를 살펴보면, 1933년 6월 「만보산재주동포(萬寶山在住同胞)는 상조권(商租權)을 완전(完全)히 획득(獲得)」²¹⁾이라는 기사에서 만보산 사건 해결 소식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사건 7년 후인 1937년 6월 이후에는 '만보산'이라는 지명이 '재만 조선인 동포'나 '이민'과 같은 집단과 연결되면서, 「만보산 사건」과 같은 현지 주민과의 충돌은 회피해야 하며,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의 '오족협화' 일원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게재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의 만주 이주는 제국의 식민지 정책 일환으로 조직화되었다. 신문 매체 속 만주는 조선인이 제국의 지원을 받으며 활약할 수 있는 무대와 같은 이미지로 그려졌다. 예컨대 1937년 12월 『조선일보』는 두 면에 걸쳐 재만 조선인 활동 면모를 보도하면서, 「백만재만동포(百萬在滿同胞) 재만조선인활동면모(在滿朝鮮人活動面貌) 혈한개척반세기(血汗開拓半世紀)에 황무지(荒蕪地)가 수전화(水田化)」라는 기사를 비롯해 농업·상업 등 각 업종에서 활약하는 재만 조선인을 소개했다.²²⁾ 즉,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주류 신문 매체에서 만보산 사건은 제국의 공적으로 서술되었고, 만주는 조선인의 이주에 적합한 지역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언설은 조선인의 만주 개척을 정당화·안정화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태준의 작품에서는 다른 만주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농군」에 앞서 발표된 「이민 부락 견문기」에서도 만주는 재만 조선인들에게 황량하고 살기 어려운 곳으로 묘사된다. 견문기의 마지막 회에서는 “황막한 들판에 남겨진 그들을 다시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염치없게 되었다”²³⁾고 기록되어 있으며, 11편의

21) 『東亞日報』, 1933.06.14.

22) 「百萬在滿同胞在滿朝鮮人活動面貌」, 『朝鮮日報』, 1937.12.22.

전문기 전체에서 “희망의 단초로서 당시의 만주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²⁴⁾ 그리고 소설 「농군」에서는 이러한 수난의 땅으로서의 만주와 피해자로서의 재만 조선인 형상이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야기의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농민이라는 독자를 의식한 「농군」

그렇다면 동시대 조선 문단은 사건 8년 후에 다시 제기된 만보산 사건의 소설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농군」은 발표되자 조선 문단에서 격찬을 받았으며, 임화는 「농군」에 대한 작품평을 『조선일보』에 발표해 작품에 대한 독해를 제시했다. 임화는 작품 속 중·조 농민들의 수로 분쟁을 “민족 수난사의 운명을 상징한 대화폭이 될 수 있다”라며 결코 속되게 ‘생산적인 건강미’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수로 공사에 임한 조선인 집단의 영위를 ‘도로(徒勞)’라고 규정하며, 그들을 비극적 인간으로 파악했다.²⁵⁾ 이태준과 임화가 다시 제기한 만보산 사건에는, 당시 신문 매체에서 보도된 만주에서 활약하는 재만 조선인의 모습과는 다른, 재만 조선인의 수난상이 클로즈업되어 있었다. 당시 만주 이주 선전과는 상반된 재만 조선인 농민을 둘러싼 이태준의 창작과 임화의 해독이 일치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현대소설사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소설은 주로 1930년대 중반부터 많이 발표되었고, 이태준도 「농군」을 비롯해 농민을 그리는 소설을 발표했다.²⁶⁾ 임화도 당대 농민소설에 대한 평론 「농민(農民)과 문학(文學)」을 발표해 농민소설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평론은 이태준이 편집을 담당했던 잡지 『문장』에 실렸으며, 이태준도 농민소설 창작의 흐름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화의 「농민과 문학」에서는 “농민에게는 정론과 계몽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니, 유락과 위안

23) 이태준, 1938, 「移民部落見聞記11」, 『朝鮮日報』, 1938.4.20.

24) 장영우, 2006, 「농군과 만보산사건」, 『현대소설연구』 31, 한국현대소설학회, 168쪽.

25) 임화, 1939, 「七月創作評(1)癡! “農軍”의悲劇美」, 『朝鮮日報』, 1939.7.19.

26) 오양호, 1996, 「농민소설의 텍스트 상호전이문제 연구: 이태준·이무영·이근영의 1940년대 농민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59, 한국어문화회, 303쪽.

도 또한 필요하다. 더욱이 정론과 계몽은 유락과 미감을 통해서만 온전히 독자를 감화의 경지에서 매혹시킬 수 있다”²⁷⁾라고 강조되며, 감성을 지닌 농민을 위한 농민소설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즉, 1930년대 후반 조선 문단에서는 소재로서의 ‘농민’뿐 아니라 ‘독자’로서의 농민을 의식하면서, 대중 비판적이기보다는 독자를 감화함으로써 농민을 계몽할 수 있는 문학이 제창되고 있었던 것이다.

「농군」은 주인공에게는 애정적·찬탄적이고, 독자에게는 객관적 혹은 설교적이다라고 평가되었다.²⁸⁾ 이러한 작품은 임화가 제창한 농민문학에 걸맞은 것이었다. 만주의 열악한 환경을 그린 작품 내용과 재만 조선인 농민을 비극적으로 파악한 동시대의 해석 속에서는, 만주 개척 동원을 권장하기는커녕 민족 대립과 민족의 수난을 강조하는 만보산 사건을 통해 만주에 대한 거부감이 환기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장혁주의 「개간」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개간」 또한 같은 만보산 사건을 다룬 소설이지만, 현지 중국인 관민과의 충돌을 겪은 재만 조선인 농민이 재만 일본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 만보산 농장 경영을 실현하고 안정된 생활을 얻는 결말로 끝난다. 이러한 일종의 ‘해피엔딩’에 의해 만주 이민의 희망을 이야기한 「개간」에 비해, 「농군」과 조선 문단이 다시 이야기한 만보산 사건은 재만 조선인의 수난을 상기시키는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만보산 사건 8년 후, 식민지 조선에서 만주 이주가 선전되는 가운데 발표된 「농군」 원텍스트가 지닌 의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Ⅲ. 번역 텍스트로서의 「농군」

그렇다면 당시 만주 이주의 식민지 정책과는 상이한 재만 조선인의 상황을 전한 「농군」은 어떻게 일본어로 번역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일본 문단에서 어떻게 읽혔는가.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논하면서, 일본어로 읽히는 「농군」

27) 임화, 1939, 「農民과文學」, 『文章』 1(9), 文章社, 161쪽.

28) 신춘호, 1992, 「이태준의 농민소설 연구」, 『동화와 번역』 11, 11쪽.

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일본어로 두 차례 번역된 「농군」

일본어로 번역된 「농군」은 두 가지 버전이 있다. 하나는 신건이 편역한 『조선 소설대표집』(1940.2)에 수록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정인택이 옮긴 『이태준 단편 소설 복덕방』(1941.8)에 실려 있다.

먼저 『조선소설대표집』을 편역한 신건은 「역자의 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을 더 잘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수록 작품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일본에서 접할 수 있는 작품 가운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여기에 적당한 것”이라고 편역의 목적과 기준을 설명했다. 그러나 수록된 작품의 출전은 단편집(7편), 잡지문장 임시증간호 『창작 32인집』(4편), 『조선문학전집(朝鮮文學全集)』(2편)으로, 신건은 다수의 작품 중에서 선별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취사선택에는 역자 나름의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단편 소설 가운데 만주를 무대로 한 작품을 세 편 번역한 점에서, 재만 조선인에 대한 역자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신건(申健)의 본명은 신현칠²⁹⁾이며, 1938년 조선 자연과학사상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서양 미술에 경도되어 좌익 사상을 가진 일본의 문학청년 및 미술청년들과 교류가 많았다고 한다.³⁰⁾ 『조선소설대표집』의 표지에는 한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초상화는 신건의 두 회고록³¹⁾의 표지에도 사용되었다. 회고록에서는 이 초상화가 이리에 히로시(入江弘)의 작품임이 명기되어 있으며, 이는 대표집의 장정가와 일치한다. 신건이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교류했던 좌익 청년들이란 바로 이 초상화의 화가 이리에 히로시와 당시 교재사(教材社)의 경영자였던 다카야마 기쿠지(高山菊次)였을 것

29) 한자를 확인할 수 없어, 한글 독음에 따라 표기하기로 했다.

30) 신현칠, 2009.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변하고 있다』, 삼인, 120쪽.; 이상경, 2014. 「김동인의 「붉은 산」의 동아시아적 수용: 작품 생산과 수용의 맥락」, 『한국현대문학연구』, 44, 245-280쪽은 『조선소설대표집』의 번역자 신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큰 참고가 되었다.

31) 하나는 앞서 언급한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변하고 있다』이며, 다른 하나는 『필부(匹夫)의 상(像)』(개마서원, 2002)이다.

이다.³²⁾

그러나 일본 청년들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해서 신건이 편역한 『조선소설대표집』에 친일적 경향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교류로 인해 작품의 편역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소설대표집』의 간행을 두고 당시 조선 문단에서는 원작자와의 협의 없이 일본어로 소설집을 출판한 것에 대해 항의가 있었으며,³³⁾ 신건이 번역 과정에서 작가의 의향을 타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자 신건의 일본 체류 경험과 번역 경위로, 번역 작업에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 번역자로서의 개인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신건은 마르크스주의의 큰 영향을 받아 약소민족의 독립은 사회주의 질서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문학 작품 또한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해야 한다고 보았다.³⁴⁾ 「농군」이나 「붉은 산」 등 재만 조선인 농민의 피해를 묘사한 소설을 번역한 것도 이러한 문학 이해와 사상적 배경의 산물이며, 식민지 지배를 받는 약소민족으로서 조선인의 입장을 가시화하려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군」의 또 다른 일본어 번역이 수록된 『이태준 단편소설 복덕방』은 “제2회 조선예술상 수상작”으로 모던일본사에서 출판되었다. 그 수상은 조선문인협회(朝鮮文人協會)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선정 위원 명단에는 이태준도 포함되어 있었다.³⁵⁾ 또한 야마다(山田)의 지적대로, 모던일본사가 제정한 ‘조선예술상’의 배후에는 당시 사장이었던 재일 조선인 지식인 마해송(馬海松)의 후원이 있었다.³⁶⁾ 소설집의 역자로 알려진 정인택은 조선어 문예지 『문장』의 편집진에 속해 작가 이

32) 池田敏子, 1990, 「性生活に革命をもたらした女社長」, 『血族が語る昭和巨人伝』, 文藝春秋, 207-208쪽.

33) 「葛秋語」, 1940, 『人文評論』 2(7), 86-87쪽.

34) 신현철, 2009, 앞의 책 참조.

35) 林鐘国 저·大村益夫 역, 1976, 『新日文学論』, 高麗書林, 61-63쪽. (이하 설명: 조선예술상은 기쿠치 간(菊池寛)의 의지에 의해 창설된 상이다. 1939년 10월 모던일본사가 도쿄와 교토에 설치한 조선예술상 위원회에 의해 선정 및 시상이 이루어졌다. 문학 작품의 경우는 아쿠타가와상 위원회에 위탁되었으나, 제2회부터의 심사는 조선문인협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36) 山田安仁花, 2006, 「『モダン日本・朝鮮版』出版の背景を巡って」,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集』 14, 56-58쪽.

태준의 동료였다.³⁷⁾ 그리고 정실비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모던일본사의 사장 마해송은 역자의 초벌 번역 원고를 사내 일본인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에, 소설집에 수록된 일본어 번역은 일정 부분 출판사가 수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³⁸⁾ 즉, 단편집의 출판과 번역은 작가 이태준의 작품 선택과 출판사의 전략에 의해 다층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태준 단편소설집 복덕방』에 실린 「농군」의 일본어 번역에는 역자 정인택의 의도적인 각색은 비교적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간행된 단편집의 발문이 재일 조선인 작가 장혁주에 의해 쓰인 점을 고려하면, 『이태준 단편소설집 복덕방』의 일본 출판은 조선 출신 문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혁주는 단편집의 후기를 쓰기 위해 이태준의 「까마귀」와 「농군」을 다시 읽고, 「농군」을 “작자 자신의 막다른 길을 타개하고 리얼리즘 탐구로 시야를 확장한” 전환적 작품으로 파악했다. 그는 「농군」이라는 텍스트를 가시화한 것이다. 특히 장혁주는 만보산 사건에 오랫동안 주목했으며, 1943년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 「개간」을 발표했다. 장혁주는 발문에서 만보산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식민지 조선 출신의 동시대 작가로서 이태준 작품에 “내포된 고민과 슬픔을 손에 잡듯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농군」을 “작가와 동시대의 고뇌”를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이 「까마귀」를 읽으면서, 나는 그 너무도 절박한 슬픔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애정 때문에 결국 눈물이 나왔다. 그러나 더 크게 울기 직전에 늘 멈춰 서게 된다. 이 눈물 나는 감정은 아마도 이 작자와 같은 시대의 고뇌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울음이 터지기 직전에, 독

37) 「餘墨」, 『文章』 4, 文章社, 1939.5. 정인택은 1939년 5월호부터 입사해 잡지 편집진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38) 정실비, 2019, 앞의 논문 참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この「鴉」をよみながら、私はそのあまりにももの切つばつまつた悲しみと、「彼」の心の奥底にうごめいてある愛のために、つい泣けて來たのである。が、もつと泣けさうで、常にその寸前に踏み止まらせてあるのである。この泣ける氣持は恐らくこの作者と同じ時代の苦惱を知るものでなければ理解しにくいことであらう。そして、この泣き出す寸前に、讀む人の氣持をそつと押し止めてある何者は、遂に堰を破つて出るに違ひないそれが農軍である。

자의 감정을 살며시 누르고 있는 무언가는 마침내 붓물을 터뜨리듯 흘러나올 것이 틀림없다. 그것이 바로 「농군」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자의 감정을 살며시 누르고 있는 무언가(讀む人の氣持をそつと押し止めてある何者)”란, 「농군」에서 그려진 고향을 떠나 만주에서 고투하는 조선인의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완곡한 표현의 뒤에는 같은 민족인 재만 조선인에 대한 동정이 있으며, 작품의 내용과 조선 문단에서의 평가를 함께 고려하면, 「농군」을 작품집에 수록해 일본어로 번역한 경위에는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기반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군」이라는 텍스트의 바탕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지만, 출판의 맥락을 보면 각 역자의 상이한 상황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진 두 일본어 번역은 원문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각각 일본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번역문의 분석을 통해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일본어 번역으로 읽는 만주에서의 조중(朝中) 농민 충돌

먼저 『조선소설대표집』(신건 편역)은 표제대로 당시 조선 문학의 현황을 보여 주는 작품집으로 인식되었으며, 일본 문단에서는 아사미 후카시(淺見淵)가 당시 조선 문학을 논할 때 『조선소설대표집』을 언급하고는 했다. 아사미는 이 작품집을 통독하고 나서 조선 문학이 ‘대륙의 냄새(大陸の匂ひ)’를 풍기며 소재주의(素材主義)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동인의 「붉은 산」과 이태준의 「농군」에서는 “그러한 느낌이 한층 더 강하다”고 했다. 아사미의 조선 문학에 대한 인상은 장혁주의 소개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농군」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단에 소개되었던 이태준의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애수는 감지하지 못했던 듯하다. 평론 속에서 그는 「농군」에 묘사된 재만 조선인들이 수로를 파는 모습에서 ‘강인하고 집요한 생활력(逞しい執拗な生活力)’을 볼 수 있지만, 장혁주가 말하는 조선 작가의 ‘낭만적 특성(浪漫的特性)’이나 ‘풍부한 감성(感性が豊富なこと)’과 같은 특질에 대해서는, 그것이 두드러지는 작품일수록 오히려 감명이 덜하다는 점을 지적한다.³⁹⁾ 아사미에게 있

어 조선 문학의 특질이란 일본어로 번역된 작품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었으리라. 다만 번역된 조선 문학의 특징은 서사 내용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번역된 문장에 의해서도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아사미가 평론에서 “이것은 번역으로 읽는 탓일까(これは翻譯で讀むせらぬだろうか)”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조선 문학 특유의 표현을 일본어 번역문에서는 포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소설대표집』이 출간된 이듬해에 『이태준 단편소설집 복덕방』이 출판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장혁주의 후기는 「농군」이라는 작품을 가시화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장혁주는 이태준의 문장미가 번역에 의해 대부분 멸살되었다고 서술한 뒤, “이 책의 번역문은 아직 읽지 않았지만, 그전의 번역은 실패다”라고 아사미의 평가에 화답하는 듯한 말을 남겼다.⁴⁰⁾ 작품 「농군」에 대한 일본 문단의 평가를 정리해 보면,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번역문의 우열을 따지는 평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단, 만약 「농군」이라는 작품의 일본 내 수용 과정에 번역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과연 원문이 지닌 문장미의 상실만으로 인한 것이었을까. 조선어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애수(哀愁)’라는 추상적 감각이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사라졌는지를 검증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원문을 직역했는지 혹은 의역했는지와 같은 번역 방법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 표현이 생략되거나 첨가되었는지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원문과 두 번역문의 분석을 통해서 번역에 의해 조선인과 중국인 농민 층들의 표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 작품 「농군」의 일본어 번역이 ‘대륙의 냄새’와 ‘문장미의 멸살’로 평가받게 된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인용된 원문의 일본어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한 것이다.

39) 浅見淵, 1942, 「朝鮮作家論」, 『文学と大陸』, 図書研究社, 91-95쪽.

40) 張赫宙, 1940, 「後記 作家履歴紹介 李泰俊氏」, 張赫宙 편, 『朝鮮文学選集』, 赤塚書房, 267쪽. 일본어로 번역된 「까마귀」는 잡지 『모던일본 조선판』(1939.11)에 게재되었고, 『조선문학선집』 제1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조선문학선집』의 편자 장혁주는 작가 이력에서, 번역은 이태준의 문장미로 결정되는 ‘작품의 맛’을 감소시키지만, 「까마귀」는 ‘그의 작품을 엿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발문에서 말하는 실패한 번역이란 「농군」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일본어판 텍스트에서의 '만주'에 대한 호칭의 문제다. 주인공 유창권 일가가 열차를 타고 처음 만주에 들어설 때, 원작에서는 “지붕 낮은 이곳 사람들의 부락이 지나간다.”(127쪽)라고 서술되어 있다. 신건이 번역한 일본어 번역본 「농군」에서는 각각 “妙な形の屋根の見える此國の百姓たちの部落が過ぎて行く(묘한 형태의 지붕이 보이는 이 나라 백성들의 부락이 지나간다).”, 정인택 버전에서는 “見慣れぬ屋根の、この土地の人たちの部落が通り過ぎた(낮선 지붕의 이 토지의 사람들의 부락이 지나갔다).”로 번역되었다. 만주와 만주의 중국인에 대한 번역을 보면, 정인택의 번역이 원작의 표현에 더 가까우며, 신건의 번역에서는 역자의 해석이 가미된 의역이 눈에 띈다. 특히 신건의 번역에서는 만주에 대해 ‘此國(이 나라)’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처음 와 본 곳인 만주에 대한 낯설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원문에는 없는 ‘國(나라)’라는 단어를 통해 국경 의식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만약 원문의 ‘지붕 낮은’이라는 말이 자아내는 감정이 단순한 만주에 대한 소외감이라면, ‘妙な形の屋根(묘한 형태의 지붕)’이라는 표현은 주인공 유창권 일가가 만주를 바라볼 때 무언가를 신기하게 느끼는 분위기를 풍긴다. 이는 이국에 있는 새로운 이주지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담아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신건의 번역에서는 원작의 ‘이곳’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此國の土民(이 나라의 토민)’이 밀려오는, ‘此國の言葉の話せる朝鮮ものたち(이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조선 사람들)’, ‘この國の土民たち(이 나라의 토민들)’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此國(이 나라)’라는 표현은 재만 조선인과 현지 중국인이 같은 민족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신건 번역본의 서사 속에서 만주 현지인에 대한 호칭은 처음의 ‘此國の百姓(이 나라의 백성)’에서 ‘この國の土民(이 나라의 토민)’으로 바뀐다. 원문에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신건은 이를 ‘百姓(백성)’으로 번역했다. ‘백성’은 ‘민중’이나 ‘서민’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역사적 맥락에서는 지배자나 귀족에 대한 일반인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농군」은 3인칭 서술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만주 사람들을 ‘百姓(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서술자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원문의 ‘사람들’이 ‘百姓(백성)’으로 번역된 결과이므

로, ‘百姓(백성)’이라는 단어에는 역자의 서사에 대한 해석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만주 사람들에 대한 ‘百姓(백성)’이라는 호칭은 그들을 재만 조선인 농민과 같은 ‘서민’으로 동일시한 것이며, ‘土民(토민)’이라는 호칭은 이주자인 재만 조선인을 시점의 중심에 둔 호칭일 것이다. 신건의 번역 텍스트에서는 만주 현지 중국인에 대한 호칭이 ‘百姓(백성)’에서 ‘土民(토민)’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國(나라)’라는 표현이 더해지면서, 이족(異族)이자 이방인으로서의 재만 조선인의 이미지가 한층 더 깊어지고 현지 주민과의 경계와 괴리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만 조선인과 현지 중국인의 접촉에 대한 번역의 문제다. 임(任)의 지적처럼, 「농군」은 만보산 사건을 그린 소설 중 “유일하게 중국인과 조선인의 언어불통 문제를 의식한 작품이다.”⁴¹⁾ 그러나 작품 속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장면을 확인해 보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사이의 교섭이 그려진 장면에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잘 드러난다. 소설 속에는 중국인 농민 및 관현과의 교섭에서 현장(縣長)의 직인이 찍힌 개간 허가장을 보여 줘도 그들이 수로 공사를 반대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는 소설 속 언어불통의 문제가 단지 언어가 다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현지 중국인 관민(官民)에게 언어적 교섭 자체가 거부당하는 상황과 연결됨으로써 재만 조선인 농민이 억압받는 표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 보면, 신건의 번역에서는 이 이중적 의미를 지닌 언어불통의 문제가 의역을 통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번역되었다. 이는 아래에서 재만 조선인들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 현지 주민들과 교섭하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너희들도 그 물을 끌어다 벼농사를 지으면 도리어 이익이 아니냐 해도 막무가내였다. (略) 또 벼농사를 지을 줄 모르면 우리가 가리켜 줄터이니 그대로 해보라고 하여도 완강히 반대로만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사람들이 칼이나 낫으로 텅 비면 저이에게도 독기도 몽둥이도 있다는 것이다. (원작, 224쪽)

41) 任秀彬, 2004, 「“滿洲”·万宝山事件(一九三一年)と中国、日本、韓国文学-李輝英、伊藤永之介、李泰俊、張赫宙」, 『東京大学中国語中国文学研究室紀要』 7, 16쪽.

お前たちもその水を引いて稲作をしろ、さうすれば却つて得をするではないかと言つて見ても、てんで埒があかないのであつた。(略) それに稲作の方法を知らないといふなら、こつちで教へてやるから一緒にやつて見てはどうかと言つてきかせても頑強に反對だけで押し通すのであつた。そして、朝鮮人が庖丁とか鎌でかかて来れば、自分らには、斧とか棍棒もあるのだと脅かすのだつた。(신건 역, 300-301쪽)

원문은 담담한 제3자의 어조로 재만 조선인과 현지 중국인 농민이 벼농사를 둘러싸고 교섭하는 상황을 그린다. 정인택은 이 장면을 거의 원문 그대로 번역하고 있으나, 신건의 번역문에는 ‘一緒にやつて見てはどうか(함께 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원문에는 없는 재만 조선인 측의 제안과, 완고한 중국인 농민의 행상을 부각하는 ‘脅かす(위협하다)’라는 표현이 더해져 있다. 이러한 가공을 통해, 벼농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조선인 농민을 위협하는 중국인 농민상이 만들어지고, 재만 조선인 농민의 막막한 입장이 부각된다. 한편, 일본어 번역에서는 이 교섭 장면에서 조선인 농민들이 명령조로 느껴지는 어조로 말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신건의 번역에는 “お前たちもその水を引いて稲作をしろ、さうすれば却つて得をするではないか(너희도 그 물을 끌어다 벼농사를 지으라, 그러면 오히려 이득이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있고, 정인택의 번역에는 “稲の植ゑ方がわからないのなら俺達が教へるからその通りにしろ(모내기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들이 가르쳐 줄 테니 그대로 하라)”라는 대목이 있다. 전자는 원문의 “너희들도 그 물을 끌어다 벼농사를 지으면 도리어 이익이 아니냐”를 두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한 결과이고, 후자는 한국어 “그대로 해보라고”를 “その通りにしろ(그대로 하라)”라는 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물론 한국어 “그대로 해보라고”에는 명령의 어조인 ‘그대로 하라’는 의미와 함께, ‘그대로 해 보게’라는 제안의 어조도 포함하고 있어 오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처럼 명령형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선인 농민이 현지 중국인 농민에게 벼농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그 결과 교섭 과정에서의 조중 농민간의 긴장감이 원문보다 한층 고조되었다. 번역문을 통해 읽히는 조중 농민 갈등의 표상은 원작보다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일본어 번역의 문체적 특징과 함께, 일본어로 재현되는 재만 조선인의 형상에 대해 분석하겠다. 이는 주인공 창권이 현지 주민들에게 구타당하는 곳으로 다른 재만 조선인 농민들이 달려오는 아래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자 웃구역에서, 또 그웃 구역에서 여깃말 할줄 아는 조선사람들이 내려왔다. 동리에서도 조선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다. 창권은 눈이 찌지게 놀랐다. 웃 구역에서 내려오는 조선사람 하나가 팽이를 둘러메고 여기 토민들 몰켜선데로 뛰라고 여깃말로 호통을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찍으려 덤벼드는 것이다. 몰켜섰던 토민들은 와 흠어져버린다. 창권을 둘러쌌던 패들도 물러선다. (원작, 224쪽)

するとやがて、上の方の區域で、更にその上の方の區域からも、此國の言葉の話せる朝鮮のものたちがやつて來た。部落の方からも朝鮮のものたちが大聲で呼ばはりながら飛び出して來た。昌權は恥が裂けてしまふ程魂消てしまつた。といふのは、上の方の區域からやつて來る朝鮮人の一人が鍬を振り上げてこの國の土民たちの眞只中に、何かこの言葉で罵りわめきながら、手當り次第に打ち落さんばかりの見慕で押しかけたからである。塊になつてゐた土民たちは、わあつと散り々々になつた。昌權を取り圍んでゐた手合も、一人二人、逃げる身構へで後退つた。(신건 역, 299쪽)

その時、上の區域から、更にその上の區域から此の土地の言葉の話せる朝鮮人たちが降りて來た。部落からも朝鮮人たちが喚き叫びながら飛び出して來た。昌權は皆も裂けんばかりに驚いた。上の區域から降りて來た一人の朝鮮人が鍬を振りかざしこの言葉で何かを喚き叫びながら遮二無二土民たちの群の中へ飛び掛つて行つたのであつた。群がり寄つた土民はわつと散つた。昌權を取り圍んでゐた男たちもぢりぢり後退し始めた。(정인택 번역, 254쪽)

원문은 총 156자로, 단문과 장문을 섞어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에 비해 두 번역문을 비교하면, 정인택의 번역이 원문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며 간결하게 번역된 반면, 신건의 번역은 문장이 길어 간결함과 가독성이 떨어진다. 다만 신건의 긴 번역문에서는, 충돌에 얽힌 인물들의 몸짓과 표정을 묘사한 원문을 생

략하지 않고 모두 옮기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는 특히 재만 조선인들의 외침에 대한 번역에서 두드러진다. 원작에서는 대부분 '소리를 치다'라는 표현으로 재만 조선인의 분노를 나타내고 정인택 역시 이를 거의 '喚く(외치다, 소리치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신건의 번역에서는 '大声で呼ばはり(큰 소리로 외치며)', 'この言葉で罵り喚きながら(현저 말로 욕설을 퍼부으며)', 'わあつと(와야 하고)'와 같은 표현 외에도, 'どなりつける(호통치다)', '盛にがなりたてる(악을 쓰다)', '叫び声をあげる(고함을 지르다)', '絶叫(절규)' 등 매우 다채로운 표현이 사용되었다. 만주에서 발버둥 치는 재만 조선인의 모습이 신건의 번역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일본어판 「농군」에 나타난 중국인과 조선인 농민의 형상과 그들 간의 대립 구도는 번역문의 어휘 선택과 문체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체의 측면에서, 정인택의 번역은 전반적으로 문장의 간결함과 가독성이 유지된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정실비는 자신의 논고에서 작가 이태준과 출판사 모던일본사의 감수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⁴²⁾ 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영향력이 희석되었음을 시사한다.

그에 반해 신건이 번역한 「농군」은 역자의 의역을 통해, 억압받는 재만 조선인과 억압하는 주체로서의 중국인이라는 구도가 원작보다 한층 강화된다. 또한 만주에서 조선인은 중국인에게 이족(異族)·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번역문에서 강조되며,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신건의 번역에 사용된 재만 조선인의 분노를 드러내는 다채로운 감정 표현에서는 그들의 곤경을 독자에게 전하려는 역자의 의도 또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자의 해석과 의도가 더해진 신건의 번역은 때로 장황하여 원문이 지닌 간결한 문체와 담담한 서술 방식이 사라지고 만다. 원작 문체의 간결함을 희생시키고 감정적 표현을 더하는 번역 방식은, 아사미 후카시의 평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역설적으로 원작이 지닌 문학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 만주라는 '대륙'에서 고투하는

42) 정실비, 2019, 앞의 논문 참조.

재만 조선인의 표상이 강조됨으로써, '대륙의 냄새(大陸の匂ひ)'가 한층 더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전시하 식민지 조선에서 '만보산 사건'을 다룬 이태준의 소설 「농군」이 서로 다른 번역자에 의해 두 차례 일본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번역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재조명했다. 원문과 번역문의 표현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조선 문단과 일본 문단의 반응까지 시야에 넣고 분석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전인 한국어 텍스트 「농군」은 그동안 간과되어 온 '만보산 사건'의 당사자, 즉 재만 조선인 농민의 목소리를 되살려 내면서 조선인의 만주 이주 수난사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식민지의 전쟁 협력 일환으로 조선인이 만주 이주에 동원되던 당시, 조선 문단에서는 텍스트에 담긴 과거 재만 조선인의 고난을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극으로 해석했다. 또한 농민을 독자로 상정하고 농민을 위한 문학을 창작하고자 했던 당시 조선 문단의 '농민문학'이라는 흐름 속에서 볼 때, 「농군」은 만주 이주의 주력이었던 농민 독자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만주 이주와 '만주국'의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슬로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텍스트로 읽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농군」은 일본어로 두 차례 번역되었다. 각각의 번역을 살펴보면, 신건의 번역은 의역을 통해 작품 속 '만보산 사건'에서 나타나는 중국인과 조선인 간의 언어불통과 충돌의 표상을 한층 강화한 반면, 정인택의 번역은 작가와 출판사의 감수를 거침으로써 원문의 분위기를 비교적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정인택의 번역은 신건의 번역에 비해 번역자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텍스트는 장혁주의 후기를 통해 『이태준 단편소설집 복덕방』 안에서 강력하게 가시화된다. 「농군」을 둘러싼 후기의 내용은 피식민자로서의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 의식을 완곡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정인택 번역이 지닌 민족주의적 색채는 장혁주의 후기에 의해 더욱 선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신건 번역의 「농군」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번역의 완성도를 문제 삼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재만 조선인의 고난을 강조하려 했던 작가의 집필 전략과 동시대 조선 문단의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신건의 번역이 그 목적에 더 부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건의 번역에 장혁주가 내린 '실패한 번역'이라는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농군」은 작품집에 수록되는 형태로 일본어로 번역되었지만, 어쩌면 이 작품은 처음부터 일본어 번역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농군」이 조선 문인을 향한 일본어 창작 및 조선 문학 작품의 일본어 번역 요구가 노골화되던 시기에 집필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1938년 10월, 하야시 후사오(林房雄)를 비롯한 일본 문화인과 당시 조선 문단의 문인들이 경성에서 연 좌담회에서 이태준은 일본 문화인들에게 '朝鮮語(조선어)'와 '内地文(내지문)' 중 어느 쪽으로 작품을 쓰길 바라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하야시 후사오(林房雄)는 “작품은 모두 内地語(내지어)로 창작해 주길 바란다”, 만약 “내지어로 조선의 문화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번역을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 후의 좌담회에서 이태준의 발언은 기록되지 않아, 하야시의 답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태준 자신이 모던일본사의 일본어 번역 단편집 『복덕방』 출판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이 단편집의 출간은 해당 좌담회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좌담회에 참석했던 일본 문인들을 포함한 일본 문단에서는 재일 조선인 작가 장혁주의 후기를 제외하면, 이 일본어 번역 단편집에 대한 동시대의 평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본 문단의 요구에 부응한 『이태준 단편소설집 복덕방』에 대한 일본 문단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당시 식민지와 제국 간 문화 교류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뿐만 아니라, 제국의 헤게모니에 따른 자의적 문화 통치 아래에서 피지배자의 목소리가 결국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 준다.

그에 반해, 신건 번역의 『조선소설대표집』 출판은 제국의 지식인과 식민지 조선 출신 지식인의 공동 작업으로 당시 제국과 식민지 문단의 중심부가 아닌, 개인

적으로 서적 번역 및 출판과 같은 문화 사업에 참여하던 일반 문화인들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지식인들은 문단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제국의 문화 정책에 따른 통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신건이 번역한 「농군」에서는 문단의 중심에서 벗어난 환경 속에서 식민지 출신 번역자가 개인의 해석과 감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번역에 투영할 수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번역자 신건은 「농군」처럼 자기 민족의 고난을 묘사한 작품을 선정하고, 번역문을 통해 작품 속 재만 조선인의 분노와 몸짓을 각색할 수도 있었다. 정인택 번역의 민족주의적 색채가 장혁주의 후기로 강화된 것과 달리, 신건의 번역은 번역문 자체가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제국 일본의 독자 앞에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농군」의 집필과 번역을 관통하는 핵심은 민족주의적 의식이다. 이태준은 검열을 피하고자 표면적으로는 제국의 시선을 빌려 만보산 사건의 원인을 장췌린(張作霖) 군벌의 무능한 통치로 돌리는 듯 보이지만,⁴³⁾ 서사의 핵심은 '만주국'의 '오족협화'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재만 조선인의 이중국적 문제 및 현지 중국인과의 대립에 있다. 이를 통해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프로파간다가 얼마나 허구적이며, 재만 조선인을 억압하는지를 독자에게 보여 준 것이다. 「농군」에 묘사된 '만보산 사건'은 조선인의 만주 이주 과정에서 겪은 고난의 역사를 환기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농군」은 '내선일체(內鮮一體)', '오족협화(五族協和)'와 같은 민족 공존을 표방하며 실질적으로는 제국의 지배를 강화했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힘을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농군」을 '만보산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보고 작가 이태준의 만주에 대한 인식이나 시국 영합의 문제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본고는 「농군」이라는 텍스트가 번역을 통해 식민지에서 제국으로 유통되는 과정에 주목해 텍스트를 다시 읽었다. 그 결과, 「농군」의 번역이라는 과정의 배후에는, 제국의 식민지 동화 정책 아래 억압받던 시기, 피지배자 측 문인들이 역사와 문학을 통해 민족의 주체성을 주장하려 했던 과정이 존재했음을

43) 고명철, 2008,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 이태준의 「농군」과 한설야의 「대륙」을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49, 83-110쪽.

밝혔다. 전시하에 두 차례 일본어로 번역된 이태준의 「농군」은, 당시 제국과 식민지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양측 문단의 중심적 인물로부터 주변부에 위치한 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인들이 작품의 번역과 출판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양상을 감지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기림, 1933, 「작가기본작가(10)스타일리스트李泰俊氏를論함(二)」, 『朝鮮日報』, 1933.6.27.
백철, 1932, 「一九三二年度既成新興兩文壇의動向(三)文壇時評(其一)」, 『朝鮮日報』, 1932.12.23.
임화, 1934, 「一九三三年의朝鮮文學의諸傾向과展望(八)」, 『朝鮮日報』, 1934.1.14.
이태준, 1938, 「移民部落見聞記11」, 『朝鮮日報』, 1938.4.20.
임화, 1939, 「農民과文學」, 『文章』 1(9), 文章社
임화, 1939, 「現代小説의歸趨-創作32人集을中心으로」, 『朝鮮日報』, 1939.7.19.
임화, 1939, 「七月創作評(1)燎! “農軍”의悲劇美」, 『朝鮮日報』, 1939.7.19.
「葛秋語」, 1940, 『人文評論』 7.
『國民政府公報』 86, 1929.2.7.
『東亞日報』, 1933.6.14.
「百萬在滿同胞在滿朝鮮人活動面貌」, 『朝鮮日報』, 1937.12.22.
「外交公文書 二、萬寶山事件關係」 1931.6.6.

2. 단행본

- 상허학회 편, 2004,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신현철, 2009,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변하고 있다』, 삼인
權寧珉 편저, 田尻浩幸 역, 2012, 『韓國近現代文學事典』, 明石書店
貴志俊彦 외 2인 편, 2012, 『二〇世紀滿洲歷史事典』, 吉川弘文館
南富鎮, 2011, 『翻譯의文學 東アジアにおける文化の領域』, 世界思想社
王霖·高淑英 편, 「外交部致日本駐華公使照會(1931.9.15)」, 『萬寶山事件』, 吉林人民出版社
遠藤正敬, 2011,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おける国籍と戸籍-滿洲·朝鮮·台灣』, 明石書店
李泰俊, 1941, 『李泰俊短編小説集福德房』, 모던日本社
林鐘國 저·大村益夫 역, 1976, 『新日文學論』, 高麗書林
張赫宙, 1940, 「後記 作家履歷紹介 李泰俊氏」, 張赫宙 편, 『朝鮮文學選集』, 赤塚書房
池田敏子, 1990, 「性生活に革命をもたらした女社長」, 『血族が語る昭和巨人伝』, 文藝春秋
淺見淵, 1942, 「朝鮮作家論」, 『文學と大陸』, 図書研究社

3. 논문

- 고명철, 2008, 「동아시아 반식민주의 저항으로서 일제말의 '만주 서사: 이태준의 「농군」과 한철야의 「대륙」을 중심으로」, 『韓國文學論叢』 49

- 김재용, 2002,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65
- 김철, 2002, 「몰락하는 신생(新生):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誤読)」, 『상허학보』 9
- 손승희, 2007, 「지역너머의 萬寶山事件(1931년)」, 『인문연구』 53
- 신춘호, 1992, 「이태준의 농민소설 연구」, 『동화와 번역』 11
- 오양호, 1996, 「농민소설의 텍스트 상호전이문제 연구: 이태준·이무영·이근영의 1940년 대 농민소설을 중심으로」, 『어문학』 59
- 이상경, 2010, 「이태준의 「농군」과 장혁주의 「개간」을 통해서 본 일제 말기 작품의 독법과 검열: 만보산 사건에 대한 한중일 작가의 민족인식 연구(1)」, 『현대소설연구』 43
- 이상경, 2014, 「김동인의 「붉은 산」의 동아시아적 수용: 작품 생산과 수용의 맥락」, 『한국현대문학연구』, 44
- 장영우, 2006, 「농군과 만보산사건」, 『현대소설연구』 31
- 정실비, 2019, 「이태준 단편소설집 『복덕방』의 일본어 번역출판양상: 모던일본사관 『복덕방』(1941)과 동방사관 『복덕방』(1955)을 통해서 본 번역과 제국주의의 관계」, 『한국현대문학연구』 58
- 山田安仁花, 2006, 「『モダン日本・朝鮮版』出版の背景を巡って」,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集』 14
- 杉森正弥, 1977, 「伊藤永之介と李輝英の「万宝山」-日本・中国文学における朝鮮人像」, 『語学文学』 15
- 任秀彬, 2004, 「“滿洲”·万宝山事件(一九三一年)と中国、日本、韓国文学-李輝英、伊藤永之介、李泰俊、張赫宙」, 『東京大学中国語中国文学研究室紀要』 7

■ Abstract ■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e Wanbaoshan Incident in Transl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Japanese Versions of Lee Tae-jun's "*Nonggun*"

PIAO HONG(nagoya university)

This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Lee Tae-jun's "*Nonggun*" a fictionalization of the Wanbaoshan Incident, and its two Japanese translations by Shin Geon and Jeong In-taek. It examines how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e incident is transform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two translations reconstruct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through distinct strategies. Shin Geon's translation actively introduces a nationalist perspective, sharpening the conflict between Korean and Chinese farmers, whereas Jeong In-taek's translation more faithfully preserves the original style and thematic concerns. This divergence in translation strategies reflects the dual pathways of cultural contact between colonial Korea and imperial Japan—both through central literary networks and through more peripheral channels.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translation processes and textual outcomes, this study argues that translation is not merely a tool for linguistic transfer but a cultural practice that negotiates and reconstitutes meaning within the asymmetrical power relations between empire and colony.

Key words: Wanbaoshan Incident, Nonggun, translation studies